

7개 행사 통합 '울산세계미래산업박람회'... 산업 경쟁력 과시

내달 6일~8일 UECO서 열려
울산 주력산업 등 대대적 전시
국제 토론회·기조강연 등 예정

울산시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울산세계미래산업박람회(WAVE) 2024'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울산세계미래산업박람회'는 기존 개별적으로 개최되던 이차전지산업 전시회, 국제수소에너지 토론회(포럼), 도심항공교통(UAM)산업 육성 토론회(포럼), 수출·구매상담회 등 7개 행사를 통합해 울산 최대 국제 산업박람회로 거듭난다.

이번 박람회는 울산의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첨단 기술을 대대적으로 전



시하며, 총 5개 주제 구역(테마 존)으로 구성됐다.

▲울산 배터리 테크플러스(U-BATTERY TECH+) 구역(이차전지 산업의 전주기 공급망) ▲뉴런 에이아플러스(Neuron AI)+ 구역(인공지능 기반 미래 신산업) ▲지능형이동수단(스마트모빌리티) 구역(도심 항공 이동수단, 자율주행 차량 등) ▲미래에너지 구역(수소·분산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새싹기업(스타트업) 구역 7년 이내 혁신 기술 보유 새싹기업 등이다.

고려아연, 삼성SDI, LS Mnm, SK 에너지, S-oil, 현대자동차 등 울산을 대표하는 대기업들도 참가해 울산의 산업 경쟁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또 다양한 국제 토론회(포럼)도 개최된다.

주요일정으로는 11월 7일에는 U-BATTERY TECH+토론회(포럼), 울산형 도심항공교통(UAM)산업 육

성 토론회(포럼), 8일에는 울산국제수소에너지토론회(포럼)가 열린다.

세계적 선도기업의 최고급 연사들이 기조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저명한 연사들이 각 분야의 최신 동향을 설명한다.

이밖에 초청 해외 바이어 수출 상담회, 대기업·공공기관 구매 상담회, 새싹기업(스타트업) 투자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가기업들의 투자유치 기회를 적극 지원한다.

한편 이번 행사는 사전 또는 현장 등록을 통해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11월 5일(화)까지 누리집을 통해 사전 등록 후 방문하면 현장에서 기다리는 불편함 없이 바로 관람이 가능하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전남도

농촌협약 공모에 3곳 선정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4년 농촌협약 공모를 신청한 광양시, 담양군, 장성군, 3곳 모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농촌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국비 666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3개 시군 농촌지역이 정주여건 개선으로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부터 광양시는 봉강면 등 6개 지구, 담양군은 금성면 등 6개 지구, 장성군은 장성읍 등 6개 지구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전남=양수영 기자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보러오세요”

이달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진행
6개 분야, 46개 단위 행사 펼쳐져
행사 주제 '생태탐험·어린이 놀이터'

제9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 축제가 10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9일간 강진만생태공원(강진군 강진읍 생태공원길 47)에서 개최된다.

갈대축제는 남해안 최대 생태 다양성의 보고인 강진만생태공원의 품속에서 갈대와 문화, 사람이 한데 어우러진 생태 관광 축제로, 모두 6개 분야, 46개의 단위 행사가 펼쳐진다. 개막식은 26일(토) 저녁 5시부터 시작되며 가수 진옥, 조정민, 손태진이 출연해 화려한 막을 올린다.

'갈대의 추억, 살아있는 생태, 어린이들의 놀이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1572종 생명의 보고인 강진만의 생태계에 대해 배우는 '갈대로드 생태탐험대'와 함께 '어린이에게는 즐거움을, 관광객에게는 휴식'을

제공하는 흔치 않은 힐링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갈대로드 생태탐험대는 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자연생태 해설사의 재치 넘치는 설명과 함께하는 생생한 탐방으로 갯벌 생태계에 대해 배울 수 있다.

환경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자연의 고마움을 느껴보는 '갈대밭 힐링 산책길'에는 양산 대여 서비스가 제공되며,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밤에는 '갈대로드 달빛 야행'이 펼쳐지며 흔치 않은 가을밤의 낭만을 수놓는다.

9일간의 축제기간동안 대형 음식부스 3곳에서 향토음식관이 운영되며, 강진군이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강진 농특산물 판매관인 '초록민음 직거래 장터'와 함께 다양한 먹거리, 즐길거리를 겸비한 군민 주도형 자율장터가 운영돼 먹고 쇼핑하는 즐거움도 추가된다.

/강진(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빛가람 페스티벌'

오는 19일~20일 열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소통과 화합의 장인 '제10회 빛가람 페스티벌'이 19~20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빛가람 10년, 추억을 담다! 미래를 보다'라는 주제로 혁신도시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즐기며, 지역 상생발전 의미를 되새기는 프로그램으로 치러진다.

첫날엔 개막식에 앞서 이전 공공기관 오케스트라 공연, 청소년 K-팝댄스대회, 나주시 소년소녀합창단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이어 전남도, 나주시, 공공기관 관계자와 지역 주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진행되고 온가족이 즐길 광주시립교향악단 공연, 나주시립국악단 공연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둘째 날인 20일엔 빛가람동 마을합창단과 장구난타 공연, 이전 공공기관 동아리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어린이 비중이 높은 혁신도시 특성에 맞춰 준비한 어린이 놀이터(에어바운스)와 체력존, 힐링 캠프존, 푸드존 등 부대행사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광주=양수영 기자



개막식 퍼포먼스 모습.

/산청군

'산청한방약초축제' 10일간의 여정 마무리

방문객 수 총 42만여 명 집계

제24회 산청한방약초축제가 지난 6일 폐막식을 끝으로 10일간의 축제를 마무리했다.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산청군 동의보감촌에서 열린 산청한방약초축제는 국내외 방문객 수가 총 42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부터 열렸던 폐막식 식전 행사는 공무원으로 이뤄진 밴드 '비상'의 공연과 '바투카타' 퍼레이드가 진행됐다.

공식 행사에서는 축제의 이모저모를 담은 하이라이트 영상과 이승화 산청 군수의 폐막사 그리고 개막식 때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창작판타지공연 '허준 동의보감 이야기'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DJ 디스코 펌키의 공연이 이어지며 제24회 산청한방약초축제가 막을 내렸다.

올해로 24회를 맞이한 산청한방약초축제는 'THE 신비로운 약방 페스타 1613'이라는 슬로건과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신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중장년층은 물론, 2030 세대에게도 큰 호응을 끌어냈다.

산청군이 자랑하는 약초 및 농특산물 판매에서 12억원의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148만여 명 방문

역대 최대 해외공연단 참석

대한민국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 '2024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에 148만여 명이 방문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7일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중앙선1942안동역, 원도심, 탈춤공원 일대에서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문화의 춤'이란 주제로 지난날 27일부터 전날까지 열흘간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25개국 35개 단체 해외공연단이 참가하고, 다양한 탈과 탈춤 콘텐츠를 축제장 전역에서 만나볼 수 있었다.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존에서는 안동지역 농특산물과 탈춤 속에 등장하는 먹거리 소재를 활용한 탈춤 축제만의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 저렴하게 판매해 호응을 얻었다.

올해 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글로벌 축제 프로그램 확대, 공간 확장에 따른 다양한 탈과 탈춤 콘텐츠 활성화, 볼거리·즐거거리·살거리·먹거리가 풍성한 축제로 만들어졌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전 세계가 인정된 '한국의 탈춤' 17개 팀을 축제 기간 초청해 의미 있는 공연을 선보이는 자리도 마련했다.

해외에서 참가한 많은 공연단은 축제 기간 중 19회에 걸쳐 거리 퍼레이드에 참가하며 전 세계의 이색적인 탈과 공연 복장, 악기, 춤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시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인 음식의 거리, 문화의 거리에서는 웅부객주로드페스티벌을 개최해 버스킹 공연, 음식축제, 맥주축제, 상권활성화사업 등이 펼쳐졌다.

/안동(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전남도

관광객 유치활동 박차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최근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투어리즘 EXPO 재팬 2024'에 참가해 일본 관광객 유치활동에 나섰다.

투어리즘 EXPO 재팬은 일본 최대 국제 여행박람회로, 전 세계 80개국과 1300여 기업단체가 참가했고, 18만 명이 이상이 방문했다.

도와 관광재단은 B2B 상담을 통해 항공사 진여와 현지 여행사(HIS, 한류, JTB, 삼진트래블 등)와 홍보마케팅에 대해 협의하고, 일본에 전남의 미식, 웰니스, 매력 발산을 통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경남도

카카오톡으로 민원·소통해요

경남도는 8일부터 도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소통할 수 있는 '경남 모바일 열린도지사실'을 운영한다. 앞으로는 도민들이 카카오톡으로 편리하게 민원 신청과 도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도민은 QR 코드로 카카오톡 경남 모바일 열린도지사실 채널로 입장해 다양한 형태로 민원이나 의견을 등록할 수 있다.

접수된 내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신속히 처리되고 주말, 공휴일, 평일 오후 6시 이후 접수된 내용은 다음날 근무일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대구시

스타트업 전문 전시회 열린다

대구시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엑스코에서 개최되는 FIX 2024(미래혁신기술박람회)에서 '스타트업 아레나(Start-up Arena)'를 동시에 개최한다.

대구시에 따르면 '스타트업 아레나'는 FIX 2024의 새로 신설된 스타트업 전문 전시회로 국내외 스타트업 55개사가 미래 신산업을 선도할 혁신기술을 선보이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외 투자자, 바이어가 참여하는 IR 피칭, 비즈니스 매칭,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구=김삼복 기자